

2020 신년메세지

살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라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 과거, 현재, 미래

(1) 과거 - 회개를 통해 과거를 정리하라.

과거를 볼 때 잘했던 일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일에 대한 후회이다. 이 후회를 오늘 현재에서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이 '회개'이다. 회개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

[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회개(자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끗함'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깨끗함이 있어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과거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깨끗이 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현재와 미래 -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회개로부터 정리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오늘의 현재가 미래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미래의 소원과 소망을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미래에 대한 믿음의 적용은 '바라는 것들'을 믿으라는 것이다. 현재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이다. 비전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서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미래를 현재에 믿음으로 심는 사람과 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결산에서 나타난다. 씨앗을 처음에 심을 때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 안에 열매의 실재가 있다.

믿음의 법칙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그것이 실재가 된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 결산에서 반드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2020년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현재에 심어야 한다. 결국 그대로 된다.

[고린도전서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야 열매가 있다. 그런데 내가 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믿음의 법칙은 소망으로 미래를 현재에 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그 사람의 2020년 마지막은 달라진 결산을 보게 될 것이다.

2. 2020년을 향한 마음

(1) 살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는 일

ㄱ) 개인의 몸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개인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힘쓰자. 이것은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각 부위)의 건강함을 말한다. 아무리 다른 지체가 건강해도 한 지체가 불편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팔, 다리가 멀쩡해도 그 이외의 부분이 아프면 결국 팔, 다리의 기능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건강, 혼(지,정,의)의 건강, 육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개인의 몸이 되어야 한다.

ㄴ) 가정의 몸

가정이라는 몸에 나는 지체가 된다. 나만 영혼육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가정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몸의 원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정의 하나 된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ㄷ) 공동체의 몸

교회를 비롯해 내가 속한 일터에서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건강해야 한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 초대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속한 소그룹의 코이노니아에 있었다. 작은 소그룹은 각 지체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다. 초대교회라는 몸의 강력함과 건강함은 바로 '작은 소그룹의 코이노니아'에 있었다.

3. 한 몸의 힘

[사도행전 2:41-42, 46-47]

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나온다. 놀라운 권능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한 번에 삼천 명의 성도가 늘어난다 (41절). 가난이 없어진다. 필요가 채워진다. 모든 사람들의 호감과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활성화되었다.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이 임한다 (47절).

이런 능력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능력있는 성도였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답은 교회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모습이다.

(1) 관계의 중요성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구슬을 꿰는 일이 바로 관계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권위가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가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힘을 합치는 일이다. 초대교회가 로마제국의 핍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의 영성 때문이다. '하나'로 있을 때는 미약하지만,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결국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실재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2) 한 몸을 이루는 자에게 오는 은총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려울 때, 위기의 때'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지체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어려운 지체를 한 몸 안에서 내 일처럼 돕는다면,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분리와 떨어짐은 사탄의 역사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에게 오는 가장 큰 선물은 '은총'이다. 은총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은총을 준 사람에게 어떤 경계선도 없다. 은혜를 갚을 마음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은총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풍성하다. 다윗이 왜 은총입은 사람이 되었겠는가?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을 기억하라. 다윗이 그 속에서 한 일은 어려운 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충신이 된다. 요나단의 은총을 입은 다윗이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왕의 권위와 보상의 은총을 기억하라. 왜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요나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3) 한 몸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 '살롬'

다윗의 마지막 목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다. 완성되고 하나 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다. 그는 헤브론 시즌을 넘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 된 이스라엘이다. 그 예루살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은 '살롬'이다. 살롬은 완벽한 통치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살롬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실재적 하나님의 통치이다. 살롬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상태이다. 살롬의 상태는 만족이 있는 상태이다. 살롬의 상태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다. 살롬의 상태는 안정감이 있는 상태이다. 온전한 왕의 통치가 있는 가장 강력한 상태이다. 하나의 몸이 이루어진 곳에 임하는 하늘의 축복이 '살롬'이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살롬'이다. 살롬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축복을 생각해보라. 실재적인 축복이다. 이 축복이 2020년 조이풀 성도들에게 임해야 한다.

4. 살롬된 몸을 이루기 위해

(1) 깊은 기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특히 골방의 기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쟁이 잠잠해질 수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영적인 해답이 기도이다. 다니엘의 골방의 기도가 결국 환경의 파도에서도 살롬을 지킬 수 있는 특징이다.

(2) 말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한 확신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으라. 다음 단계를 받아낼 수 있는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보게할 것이다.

(3) 편견 없는 진짜 사랑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편견 없는 존중의 마음'이다. 편견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다. 사랑으로 모든 편견이 제거되어야 한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겉사람에 집중된 내면에 있는 편견의 벽이 부서질 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 받아들이자.